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 현상 '심화'

지난 1년간 시총 상승분의 절반 달해
두 종목 제외하면 수익률 38% 그쳐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1년 간 2배 가량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우선주 제외)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3525조원으로 지난해 1954조원에서 약 80% 늘었다. 다만 늘어난 시총 규모(1570조원)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51%(812조원)에 달했다. 837개의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시가총액 상승분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상승 규모(약 986조원)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은 8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의 시총은 소형주 20%, 중형주 38%, 대형주는 88% 상승했다. 소형주와 중형주는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상승분을 제외한다면 코스피 수익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 1년 간 오른 코스피 지수 상승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여분을 제외하면 코스피 수익률은 38% 수준으로 축소

된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2%에서 34%로 1년 만에 11%포인트 증가했다. 5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각각 123.6조원, 118.9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191%, 156% 증가한 수준이다. 송명선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잠시 주춤했던 현물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장세는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다수 종목은 따라오지 못하는 '체감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을 함께 점검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현보 기자 bo@viva100.com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이 16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삼전 시총 1000조원 넘을 것" 흥국證, 목표가 17만원 제시

흥국증권은 지난 2일 기준 시가총액 760조원을 넘은 삼성전자 시총이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5일 흥국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1조7000억원, 영업이익 19조6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1%, 2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된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이익에 반영되며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이 16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용 디램(DRAM)과 낸드(NAND)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률은 각각 전 분기 대비 38%, 24%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사 대비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것으로 추정돼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한 해 분기를 거치면서 연말 기준 공급업체들의 재고가 급감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공급업체 모두가 지난해 4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더 강력한 가격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올 1분기 범용 DRAM과 NAND의 ASP 상승률은 각각 전 분기 대비 31%, 22%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2026년 연간 분기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경우 수출 개선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품질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어 '2H26 Rubin'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점유율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손 연구원은 "모바일경험(MX)과 네트워크(NW) 사업부의 스마트폰은 경쟁 심화로 인해 판매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지난해(10.1%)보다 하락한 5.9%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메모리 영업이익의 1위 지위를 되찾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 DRAM 및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 등에 힘입어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현보 기자 bo@viva100.com

한투증권, IMA 신사업 기대감

2년 연속 영업이익 2조원 달성 목표
리테일·브로커리지 부문 실적 견고

지난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원을 달성한 한국투자증권이 올해도 2조원대 실적을 이어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사업분야 강세에 종합투자계좌(IMA)라는 신사업이 본격 가동되며 수익 기반이 한층 안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금융투자주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조268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 관측이지만 이익 규모와 수익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업계 최상위권인 만큼, 한국투자증권이 2년 연속 영업이익 2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실적 전망의 배경에는 리테일 부문의 강점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데다, 국내 증시 역시 정책 기대감과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효과와 주요 산업 업황 회복 기대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다.

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브로커리지 부문의 견조한 실적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로 지목된

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IMA 도입 효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IMA와 기존 사업장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을 함께 활용하면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 운용 여력이 크게 확대된다.

최근 조달 금리와 운용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된 환경에서 인수금융 등 안정적인 이자 수익 자산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해 말 선보인 한국투자증권의 IMA 1호 상품은 출시 나올 만에 1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완판됐다. IMA라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입증한 결과라는 평가다.

모험자본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운용 수단으로 인식되며 신규 고객 유입 효과도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투자증권은 IMA 시장에서 더욱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중 만기를 늘리고 수익률을 높인 IMA 2호 상품을 선보이며 관련 사업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대대금 증가와 브로커리지 중심의 실적 회복 흐름 속에서 IMA와 발행어음 같은 신사업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는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KODEX 코스닥150' 시리즈 2종 인기 상승자산운용 'KODEX 코스닥150' ETF와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 2종의 지난해 12월 개인 순매수 규모가 총 4964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제공

메리츠證, 美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 종료

해외주식 관련 당국 압박 영향 관측

메리츠증권이 5일부터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6년 1월 5일 0시 이후 신규 개설되는 '슈퍼365' 계좌에 대해 미국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교환을 주요인으로 간주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열풍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외주식 영업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인 영향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관련 수수료 무료, 해외주식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 관련 리테일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 중단 조치는 당국의 해외주식 마케팅 규제 기조에 호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메리츠증권 측은 기존 고객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무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종료 시점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며, 이벤트 종료 이후에 개설된 계좌 또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혜택은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지난 달 23일 해외투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손익이 변동될 수 있다거나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통화정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신리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 군민 곁에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2026 병오년에도 연천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